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5월 12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78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놀라운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백용기 -

저는 구역장님을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와진리소식지를 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던 때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분들의 그 사랑과 헌신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저처럼 예수님과 복음에 대하여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저 또한 주위의 불신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저는 1982년에 회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이에 있는 건설현장으로 파견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온통 허허벌판인 모래사막에서 일하던 어느 날, 바람에 실려 날아온 종이 한 장을 주워서 읽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한글로 된 전도지였습니다. 중동 팔레스틴 지역과 관련된 성경 이야기와 함께 천국복음에 관한 내용을 반복하여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도지를 접어 호주머니에 넣고 일하면서 수시로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위해 측량을 실시하던 중에 덤프트럭에 받히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일에 열중하고 있었고, 저를 향해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는 트럭을 뒤늦게 발견한 여러 사람이 한목소리로 외쳤으나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를 당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타이어 사이에 끼어 있다가 구출되는 그 짧은 시간에 한국에 있는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이 생각나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국으로 호송하는 도중에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하여 현지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한국에 있는 부인에게 전할 유언을 미리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라고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저의 집안은 불교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경험이 많고 이름난 영국인 의사 선생님의 집도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술을 받고 목부분을 철로 고정하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다행히 신경이 살아나거나 아니면 평생 신체마비 증상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지금 제 몸이 건강한 것을 보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 받은 것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지를 주워 읽게 된 것부터가 우연이 아니라 저를 택하시고 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직원 중에 예수님을 믿는 동료들이 찾아오면 꼭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러면 그들은 자주 병원에 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성경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귀국하여 당시 살고 있던 충청도 서천에서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안양시로 이사한 후 은혜와진리교회에 다니며 비로소 예배중심, 교회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음 제가 전도한 사람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습니다. 겨울에 잠시 일을 쉬고 있을 때에 중동의 건설현장에서 알게 된 분과 함께 기도성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에 다니며 열심히 구역장으로 봉사하는 부인을 몹시 폄박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어렵게 성회에 모시고 갔는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그분이 갑자기 온몸을 뒤척이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눈길도 모두 그분을 향하므로 저는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노심초사하였습니다.

다음날 성회에는 그분이 커다란 검은색 선글라

스를 끼고 참석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제의 자기를 알아볼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왜 그렇게 소리 내어 울었는지’ 물었더니,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후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며 회개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사진 필름이 지나가듯 그동안 아내를 모질게 대하며 폄박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이후 변화되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동에서 사고를 당하였을 때 2살과 갓난 아기였던 두 아들이 어느새 장성하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잘 자라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큰 아이가 다섯 살 때 눈에 흑이 생기고 아프게 되었을 때를 비롯하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 간부로 공직에 있는 둘째 아들이 전에 혼기가 지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아 저희 부부의 마음을 애타게 하였습니다. 성격 때문인지 기회가 와도 결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지금의 안사돈이 먼저 아들을 알고 마음에 들어 하여 따님에게 소개해 주었고, 둘이 교제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어렵던 아들의 결혼이 빠른 시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것처럼 기도하여 응답 받는 즐거움까지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이 군포시에서 수원시의 우리 교회 울전성전 가까운 곳으로 이사한 후 저는 울전성전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부부도 울전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인 아내는 안양성전에서 주일 1부예배 성가대와 소방선교회에서 오래 봉사하였기에 안양성전과 울전성전을 번갈아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타지에 거주하는 둘째 아들 가족이 곧 저의 집 가까이로 이사를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부와 두 아들 내외와 손자와 손주들까지 저희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서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며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 안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삼동) T. 031-906-3731
- 시화: 시흥시 서촌상가1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항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수원시 장안구 하물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전북 정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1권 (8단원 : 다시 오실 예수님) (제48과) 일한대로 주실 상급

- 본문 : 요한계시록 22:7-12
- 요절 :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
- 찬송 : 370장(새찬송가 330장), 401장(새찬송가 359장)

종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애쓰고 충성한 것만큼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상급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대로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날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사모하는 삶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마 25:14~30).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세 사람의 종을 불러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맡기되, 첫 번째 종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 각기 갑절의 이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춰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계하게 되었습니다. 갑절의 이익을 남긴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준 한 달란트를 땅 속 깊이 파묻어 두었던 종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처분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종은 우리 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각자의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겨 주셨습니다. 받은 바 달란트가 많고 적음에 관하여 평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내 능력에 따라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 예수님께로 다시 돌려 드리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눅 12:48). 비록 내가 받은 달란트가 적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예수님은 칭찬하시며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케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중에 이러한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계 3:8).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즉시 밖으로 나가 최선을 다해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 종들처럼 또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위해 힘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대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2. 천국을 침노하는 자세로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 11:12)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물리적인 힘이나 재물로 빼앗거나, 어떤 정치적인 계략으로 탈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런 방법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의 의미는

적극적이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힘쓰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남의 나라를 침노하여 빼앗듯이 그러한 적극성과 물불 가리지 않는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말씀이며, 그리할 때 하나님의 복 주심과 더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도합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민 13:31~33). 그들은 가나안 족속에 비하여 자기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이 열등하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하였고,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그만 낙심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는 자답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장이 장대한 가나안의 족속에 대하여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민 14:9)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 불신앙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20세 이상 모든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방황하며 죽어갔지만, 이 두 사람은 모세도 보지 못하였던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안목은 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결국 큰 상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히 10:35)

3.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도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 들임으로 성령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상급은 고사하고 자기의 신앙조차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세상임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노아의 삶을 통해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짓는데 그 기간이 무려 1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가 주위 사람들의 조소와 비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20년에 걸쳐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의 의지를 굳세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이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정로(正路)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여 반드시 주님 앞에서 상급과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마 25:21)라는 칭찬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부지런히 일하되 마치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전력투구해야 하겠습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 각 나라별 선교회

구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 산본, 포일, 부곡	수원, 영통, 진위, 전원, 동탄, 안중, 평택, 용인, 남양, 울진, 전주호자	안산, 시화, 시흥, 인천, 부천, 부평, 영종도	과천, 판교, 강남, 구리, 광주	광명, 영등포, 원주, 천안	일산, 김포, 장유, 전주평화	수원, 양주, 서산, 당진	수원, 대구, 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구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리스 앤 트루스 미션콤파이어							

◆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보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시 동참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설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